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2월 첫 번째 28권 3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50년만의 이루어진 만남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25수송지원대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 축구이야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임은경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1 회 용산 카투사 농구대회

카투사 신문 윤종필

대회의 결승경기에서 501정보여단과 34지원단이 점프볼을 하는 모습

지난 1월 9일 용산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컬리어 필드 하우스에서는 '2002/03 Area II KATUSA Intramural Basketball League(용산 카투사 농구대회)' 결승경기가 열렸다.

오후 2시 15분에 경기 주심의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시작된 결승경기에서 501 정보여단과 34 지원단은 맞붙었다. 이 경기에서 두 팀은 치열한 접전 끝에 25대 17로 501정보여단이 승리를 거두었다.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501정보여단이 톱시드로 올라온 34지원단을 제치고 이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는 34 지원단과 두 게임을 벌여 모두 이겨야 했다. 첫 번째 경기는 한 팀이 점수를 내면 다른 팀이 또 점수를 넣어 따라오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전반 종료 뒤지고있던 501 정보여단 팀이 후반에 들어가기 전 3 점짜리 슛을 집어 넣었다. 같은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3점짜리 버저비터를 또 한번 성공시킴으로써 첫 번째 게임은 연장전에 가게 되었다.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긴장감 넘치는 승부는 계속 되었다. 첫번째 게임의 승자는 501 정보여단이었다. 이 게임에서 이긴 501 정보여단은 짧은 휴식뒤에 34지원단과 재시합을 가졌다.

밴치 맴버가 적은 501정보여단은 결승전 2 시간 전에 준결승을 치루고, 첫번째 결승에서 연장전까지가 피로에 지쳤지만 그들의 이기고자하는 의욕은 꺾이지 않았다. 다리에 쥐가 나고 부상을 당하면서도 501 정보여단은 두번째 경기를 앞서나갔고 한번 잡은 리드를 놓치지 않았다. 힘겹게 두 번째 결승에 들어간 501정보여단은 피로와 부상을 무릅쓰고 용산 카투사 농구대회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로 게임에 참여한 선수들과 관객들은 모두 게임을 즐겼고 그만큼 응원 열기 또한 뜨거웠다.

2 면에서 계속...

북한 공작원 침투 장비 전시회

지난 2월11일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위치한 엠버시 클럽(Embassy Club) 앞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주체한 북측의 침투 장비 전시회가 있었다. 이 전시회는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 하기 위해 투입시킨 공작원들의 침투 장비 및 물자를 전시한 것이다.

한미 연합 침투 장비 전시회는 오전 9시에 간단한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브리핑에 참석한 미측 장교들에게 전시회를 둘러볼 기회가 주어졌다. 전시품 관람은 각 침투 장비에 대한 한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박진관 소령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이 전시회는 미군들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현재 대북관계가 호전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작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남파되고 있다고 박진관 소령은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물들이 이 전시회이며 이 증거물들을 보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장비들을 전시해 놓았다.

매년 미 524정보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전시회는 전시회 초기부터 한국군 정보사령부의 지원 하에 주최되고 있다. 미 524 정보대와 한국군 정보사령부, 이 두 조직의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 역시 전시회가 성공리에 행해졌다. 전시회에 진열된 장비들에 많은 관심을 보인 FOB(전방작전기지) 소속의 Ken Knight 대위는 전시품들을 보며 "근무하는 동안 매일 한국땅을 지키기 위해 일 하지만 북한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잊게 되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미군과 한국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었다"라며 이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카투사 신문 윤종필

브리핑을 마치고 전시회에 진열된 장비들을 보고 있는 미군 장병들

2 면에서 계속...

50년 전 맺은 인연 – 미군과 한국인 상봉

지난 12월 30일 미 2사단 본부중대 공보실의 John Cupp 병장의 아버지 Herman Cupp 씨가 애타게 찾던 당시의 '하우스 보이'와의 상봉이 있었다.

51년에서 53년까지 한국전쟁 중 수원 K-13 비행장 802기술 비행대대 A중대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돌아가 현재는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Herman Cupp 씨의 대를 이어 한국에 파견되어 미 2사단 본부중대 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John Cupp 병장은 예전부터 보았던 아버지의 한국전쟁 당시 사진속의 남자아이를 아버지를 위해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부인을 통하여 그 사진을 전달해 받았다. 12월 24일 동아일보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고, 미2사단 공보실은 바로 그 아이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몇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 아버지의 설명과 맞는 사람은 현재 수원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는 정설남씨 였다. 당시 12세 현재 63세인 그는 사진속의 아이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그 당시 Herman Cupp 씨가 자신에게 검은색 우비를 한 벌 준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미국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확인한 컵 병장은 정설남씨와의 약속을 잡았다.

12월 30일 월요일 낮 12시경 의정부시 미 2사단 Camp Red Cloud로 정설남씨가 찾아왔다. 조금은 떨린다고 하며 마음을 추스리던 John Cupp 병장은 캠프 정문으로 직접 정설남씨를 마중하기 위해 나갔다. 처음 보게된 서로의 모습에 약간 어색해 했지만 공보실 사무실에 와서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주고 받으며 정설남씨가 사진 속의 주인공임을 알게되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정설남씨는 당시 '하우스 보이'라고 불리던 미군부대 내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대가를 받던 소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그는 수원 주변에 거주 하며 K-13 비행장내의 부대들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Herman Cupp 씨 또한 그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된 컵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틀전 신문에서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지금 그 분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 찍을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이 사진을 찍은 후 나에게 독사진을 찍어 주었다. 그것을 크게 인화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신문을 읽은 후 찾아보니 찾을 수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하며 사진속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체크 무늬의 옷을 그대로 입고 찍은 독사진에 대해 설명하였다.

John Cupp 병장은 정설남씨에게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뜻깊은 만남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놀랄만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정설남씨를 만나 소식을 전해드리니 아버지께서 놀라시며 매우 기뻐하셨다.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이 직접 뵐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상병 곽영환 /Indianhead Reporter

제공사진

John Cupp 병장과 정설남씨가 만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농구 대회

1면에 이어서...

501정보여단팀의 주장 박세훈 병장은 경기를 승리로 이끈 후 "처음 네 경기를 우리가 쉽게 이기고 자만하다가 한 게임을 놓쳤다. 그 후에는 모든 선수들이 대회의 우승보다는 게임 자체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결승전까지 오는 와중에 많은 선수들이 다쳤고, 나 역시 전날 경기에서 발목을 다쳐 오늘 경기에서 진통제를 먹고 뛰었다. 우리 팀 모두 마지막에 정신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결승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34지원단 소속의 손영상 이병은 "카투사는 다른 군인들보다 결속할 기회가 적은데 이런 농구경기로 인하여 선임병과 후임병, 타 섹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친해질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만큼 이런 대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 다"라고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놓친 34 지원단 팀의 선임병장 박진훈 병장은 경기 후 "첫경기에서 끝냈어야했는데, 지고 들어간 것이 불리한 분위기로 팀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고, 함께 결승까지 온 팀원들에게 비록 졌지만 그동안 열심히해줘서 고맙고, 열심히 준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 만큼 너무 아쉬워 말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번 농구대회는 컬리어 필드 하우스 용산 스포츠 사무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17항공여단 소속의 Daniel F. Creed 주임원사가 계획, 추진하였다. Creed 주임원사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희생정신이나 협동심 등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 또한 KTA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을 만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군들도 카투사 농구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농구대회와 함께 카투사 소프트볼 대회도 추진할 생각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이병 윤종필

장비 전시회

1면에 이어서...

이번 세미나의 시작인 브리핑부터 참석한 524 정보대대 소속의 William Green 대위는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장비들 중에 최첨단이나 하이테크라고 부를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다. 여기있는 장비들은 다 일상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만큼 실용적인 물품들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한국 시민들이나 미군들의 경계심이 줄어든 요즘, 북측의 침범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시물들을 본 소감을 말했다.

이 전시회 지원에 앞장선 정보사령부 소속의 C-11팀장 박진관 소령은 "북한의 남파 공작원들의 침투가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시회를 주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도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라며 이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박진관 소령은 또한 한국의 평화유지에 미군의 주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우리나라에 와서 군복무를 하는 미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이병 윤종필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창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안등모
편집장
상병 김대동
기자
병장 이만석
일병 강병삼
일병 장승모
이병 윤종필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Information Strategy OIC
MAJ Holly C. Pierce
Editor
CPL Kim, Dae Dong
Staff Writers
SGT Lee, Man Suk
PFC Kang, Byung Sam
PFC Jang, Seung Mo
PVT Yoon, Jong Pil
Special Assistant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 Marine Jagerne (Marine Rangers)

Marine Jagerne 은 노르웨이의 두개의 특수부대중 하나이며 노르웨이 국방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는다.

영국의 SBS 나 미국의 Navy Seal 과도 비교될 수 있는 이 Marine Jagerne 은 매 2 년마다 미국의 Navy Seal 과 합동 훈련을 갖는다.

Marine Jagerne 은 적지역 침투, 정찰 및 적 해군시설의 파괴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Marine Jagerne 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Bergen 외곽의 Haakonsvern Naval 해군기지에 위치한 노르웨이 잠수병 양성 학교에서 22 주간의 고된 훈련과 Ramsund 해군기지에서의 추가 훈련을 마쳐야 한다.

훈련내용은 잠수, 카누타기, 고공낙하 등이다.

덴마크의 특수부대

◈ Jaegerkorpset

영국의 SAS와 미국의 레인져를 모델로 창설된 Jaegerkorpset 는 덴마크의 대테러부대의 하나로, 1960년 덴마크 육군 장교를 미국의 레인져학교와 영국의 SAS에 보내 특수부대 창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모든 경험을 하게 했다.

제공사진

독일의 특수부대인 KSK의 요원들이 야전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

초기에는 이 특수부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으며 미국을 모델로 하여 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덴마크 사정에는 맞지 않아 주 임무를 정찰임무 대신에 사보타지에 대한 대응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전투임무를 부여했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시 경찰 대테러부대인 Aktions-Styrken 을 지원하고 있다.

1982년부터 매년 미국의 레인져학교에 요원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영국의 SAS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전시나 훈련시 영국이나 독일의 특수부대 투입용 헬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 Froemandskorpset (Frogman Corps)

미국의 Navy Seal 과 노르웨이의 Froskemandskorps에 네명의 장교를 파견하여 창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덴마크 해군의 잠수학교 산하에서 창설된 Froemandskorpset 는 1970 년 잠수학교 산하에서 분리되어 해군본부 직속부대로 재창설되었다.

자국의 선박보호, 특수정찰, 적에 의한 사보타지 해결, 직접戰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이 부대는 평시에는 실종자 수색, 심해잠수 및 수중폭파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걸프전 당시에는 이라크에 대한 해상수송로 봉쇄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독일의 특수부대

◈ Kampfschwimmerkompanie (KSK 또는 Combat Diver Company)

KSK는 독일 고위당국자들이 현대의 수중전에 필수인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창설되게 되었다.

수 미상의 장교와 하사관들이 프랑스의 뚤롱에서 6 개월간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Sylt 섬에 훈련소를 마련하고 13 명의 자원 잠수병들로 첫 훈련을 시작하였다.

1964년 KSK는 독립부대로 승격되었고 1966년 고유한 휘장을 갖게 되었으며 1991년에는 기뢰제거함대와 통합되어 새로운 훈련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냉전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동독 항만의 정찰, 나토의 수륙양면 공격 및 적 항만의 주 함선을 폭파하는 등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냉전이 종료된 후에는 UN의 깃발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걸프전에도 참전하여 독일 선박을 보호하였다.

걸프전 이후 KSK 잠수요원들은 바다밑에 가라앉은 중요 물자를 치우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LOTTO 에 관해

498 지원대대 본부중대 중대보급
이병 심웅보

적은 돈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그 기다림 속에 로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숫자를 고르고 추첨 때 번호를 맞춰볼 때의 재미와 흥분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일 것 입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모두 로또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의 재미, 쾌감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498 지원대대 본부중대 인사과
상병 이상훈

원래 일확천금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로또에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있었더라면 친구들을 따라 재미로 사 볼만도 하였지만 부대에 있다 보니 더욱 무관심해진 이유도 있구요. 로또 열풍은 지난 월드컵 단체 응원 열기와 비슷한 우리나라 특유의 성격이 잘 드러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25 수송대대 본부중대 인사과
병장 송현섭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으로부터 시작한 즐거운 상상으로 잠시나마 흥미진진하고 왠지 벌써 당첨된 것 같은 행복감으로 자신감에 쌓여 그 한 주가 즐거울 수 있다면, 가끔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미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물두한 나머지 자신의 일에 소홀히 한 채 운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욕심이 아닌 순간의 즐거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5 수송대대 본부중대 작전과
이병 배진수

단지 재미로 한번 하는 사람도 있고, 당첨금의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은 기분전환을 위해 소액으로 LOTTO를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신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첨금에 눈이 멀어 많은 돈을 정신없이 복권에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운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것은 비겁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25 수송 지원대

약간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용산에 위치한 25수송 지원대는 25수송대대의 본부중대와 662MCT(Movement Control Team; 중대개념), 498지원대의 본부중대와 305병참중대를 포괄하고 있다. 25 수송대대는 34 지원단 소속이고, 498지원대대는 19전지사(19전구지원사령부;19th Theater Support Command) 501 지원단 소속이다. 하지만 위 중대들에 소속된 카투사들은 '25 수송 지원대'라는 이름의 1 개 부대 형식으로 한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25수송대대와 498지원대대의 다른 중대들은 전국에 퍼져 있고, 이곳에서는 행정지원만을 맡고 있으며 그곳에 파견된 해당 지원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25 수송대대(25th Transportation Battalion)는 1944 년 6 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창설하여 2 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노르망디, 라인란트 등에서 전과를 올려 부대표창을 받은 바 있다. 1960년 6월 서울역에 본부를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후 미 8군 등의 소속을 거쳐 현재는 34지원단에 편입되어 있다.

25수송대대는 수송, 이동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나 열차를 병력 이동 등의 이유로 사용해야 할 때 협의하여 이를 확보하는 등 수송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반도 내 미군들의 전반적 수송을 관리하고 그들이 미국 본토를 오고 갈 때 수송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다.(우리의 TMO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군수 물자의 수송 역시 맡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온 장비가 부산에 입항하면 철도를 이용하여 용산, 의정부 등지로 보급하는 것이다. 유사시 군속 등 민간인들의 철수작전 역시 책임지고 수행한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25 수송대대 카투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수가 '수송지원관리병'이라는 특유한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직을 지닌 카투사들은 이를 위해 전입 직후 CTMC(Combined Transportation Movement Center)라는 곳에 가서 화물이나 인원을 얼마나, 어디서, 어디로 수송하는지 컴퓨터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DAMMS-R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받는다.

25 수송대대 본부중대 김준성 상병은 "위기상황이 닥칠 때 사람들의 이동을 무사, 안전하게 책임지는 중요한 수송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498 지원대대(498th Corps Support Battalion)는 1945년 프랑스에서 227정비대대(227th Maintenance Battalion)라는 이름으로 창설하여 1967년 월남전에 참전한 이래 1971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AREA Ⅱ지역을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 1999년 9월 임무 조정에 따라 현재의 이름인 498 지원대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예하에는 본부중대 외에 정비중대, 병참중대, 수송중대 등이 소속되어 있는데 각지에 퍼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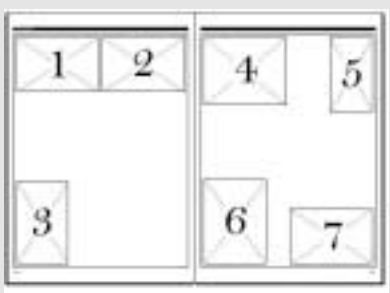
현재는 한반도 전투 지역 내에 있는 부대에 대한 전투근무 지원, 전방 부대에 대한 예비 전투 근무 지원을 맡고 있다. 본부중대에서는 대대 인사, 행정, 군수, 훈련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498 지원대대는 현재 전방 부대를 지원하고 있어 훈련도 용산의 다른 부대보다는 약간 많이 실시하는 편인데, FTX, EXEVAL, UFL, RSO&I 등 1 년에 10 회 정도 실시한다. 본부중대의 카투사들은 대대 작전지원과, 작전과, 보급, Orderly Room 등의 각 섹션에서 일하고 있는데, 섹션에 따라서는 10회가 넘는 경우도 있다.

본부중대 선임병장 민경천 병장은 카투사나 미군이 타 부대에 비해 적은 편이라 서로 잘 알고 지내며 결속력이 강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498지원대대 본부중대 대대 군종병 박정태 일병에 의하면 중대의 카투사들이 매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고 한다.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과도 나누면서 고민이 있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부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상하관계 대신 평등한



1. 305병참중대 SSA 이승헌 병장, 본부소대 보급 이웅기 상병이 창고의 장부를 점검하고 있다.
2. 25수송대대 본부중대 송현섭 병장이 훈련시 야전에서 쓰이는 발전기의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다.
3. 498지원대 본부중대원들이 훈련에 쓰일 장비들을 나르고 있다.
4. 498 지원대 본부중대 대대통신과 김정섭 병장이 험비의 RADIO CHECK 을 하고 있다.
5. 498 지원대 본부중대 IMO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r) 이재원 병장이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다.
6. 19전지사 검열에서 우승한 305병참중대 SSA 소대원들의 모습
7. 25수송대대 본부중대 김준성 상병이 LMTV의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등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98지원대대 소속으로 305병참중대(305th Quarter Master Company)가 있다. 전방에 유류, 병기, 편의시설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하거나 정수(淨水)업무를 맡고 있다.

305병참중대는 전체를 관리하는 본부소대, 모터풀, 창고를 관리하는 SSA (Supply Support Activity), 2사단의 급유를 맡고 있는 POL(Petroleum-Oil-Lubricant)소대, 화생방 공격 등에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Water Plt. 등 5개 소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투사들은 Water Plt.을 제외한 4개 소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SSA는 올해 19전지사에서 시행하는 검열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승하여 카투사들을 포함한 소대원 모두 AAM(Army Achievement Medal)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검열은 전국의 모든 SSA를 상대로 보안과 서비스, 모든 문서와 영수증을 포함한 기록, 창고 외관과 내부의 청결 상태, 정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SSA Stock Control 섹션의 NCOIC인 Michael D. Rabb 하사는 "미 8군 최고의 SSA가 되기 위해 카투사들은 페인트, 기기 설치, 청소, 정리 등 많은 일을 미군과 함께 해냈으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며 "카투사들은 군기가 확립되어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본분에 충실하여 주한미군에 있어 중요한 전력"이라고 평하였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305병참중대 선임병장 이용준 병장은 19전지사(사단) 보드까지 진출한 카투사가 2년 내 3명이고 여단보드 우승자는 2년 내 4명이며, 중대에 카투사가 17명인데 PLDC에 다녀온 인원이 2명이고 역대 선임병장 3명 모두가 PLDC 출신이라며 보드와 PLDC에 대한 중대의 전통과 높은 참여도를 밝혔다. 그 자신 역시 여단 보드를 우승한 경험이 있는 이용준 병장은 "보드를 우승했을 때 일말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고 미군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드를 통해 뭔가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25수송 지원대는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설날과 추석 같은 고유의 명절에는 민속놀이와 전통음식 등 한국문화의 일부를 미군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있으며 맥주공장, 민속촌, 청와대,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또 크리스마스 때는 보육원에 찾아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장난감을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카투사 중 교관을 선발하여 전, 후반기 6개월 씩,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한글 교육에 관심있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5수송 지원대장 김제욱 소령(진)에 따르면 25수송대대에서는 자기 자신의 본분, 기초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에 대해 프로 정신을 가지고 100%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격증 10개를 취득하고 인터넷 정보검색사 시험 교재를 집필한 지원대장을 따라 지원대 전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굳어져 업무 외에 생기는 여가시간 중 많은 부분을 자격증이나 영어 공부에 투자하며 보내고 있다. 주말에 나가면 하루에 5-6시간 정도는 공부하고 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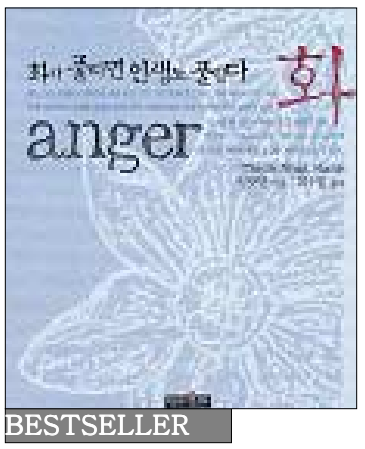
25수송 지원대는 2002년 연말 종합전투력 측정에서 단본부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어 부대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제욱 소령(진)은 카투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병때는 열심히 하다가 일병 정도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 미군이나 한국군 둘 중 편한 쪽에만 속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상병이나 병장 때 나태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채찍질로 KTA 교육병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임무수행 때 편한 것만 좇지 말고, 대한민국 카투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한 체력, 정신력, 임무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카투사로서 일하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와서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고, EO Class, 사격, PT, PLDC, 보드 등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미군들에게 우수한 카투사상을 보여줄 수 있고 스스로도 카투사는 군사외교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카투사 신문 강병삼

일병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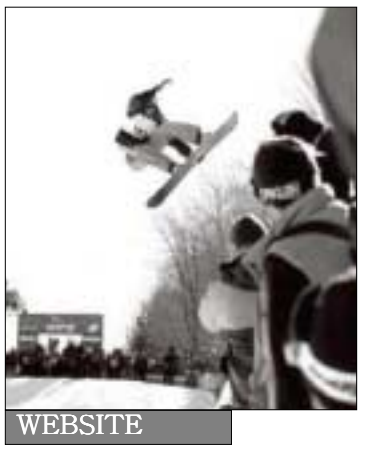


BESTSELLER

화

틱낫한 / 명진출판사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는 세계 불교계의 상징적 인물인 틱낫한 스님이 전하는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담고 있다. 평생 전쟁과 폭력의 한가운데를 걸어오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온몸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틱낫한 스님은 그의 신념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인이 안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감정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를 행복의 실체에 다가가게끔 이끌어주고 있다.



WEBSITE

치킨 샐러드

www.chickensalad.co.kr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스키와 더불어 날로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스노우보드! 사이트 이름도 특이한 치킨샐러드에는 많은 정보가 있다. 스노우보드의 역사와 구조, 세팅, 기본자세, 기초 및 고난이도 기술, 부상 발생시 응급처치법, 국내외 스키장 정보와 동영상, 벼룩시장 뿐만 아니라 프로 스노우보더들의 인터뷰와 그들의 패션, 문화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카 투 사 기 고 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아시아 최강의 리그를 꿈꾼다 -> K-리그(league)

-K리그란 무엇인가?

K 리그는 한국프로축구 정규리그를 일컫는 말이다. 기타 유럽이나 이웃나라 일본과 달리 하위,상위리그의 개념과 강등, 승격이 없는 폐쇄적인 리그이며 1982 년부터 시작 되었다. 현재 열개의 프로구단이 참가하고 있으며 시민구단으로 창단될 예정인 FC 대구, 그리고 상무가 이르면 2003시즌부터 K리그에서 활약할 준비를 하고있다.

-K 리그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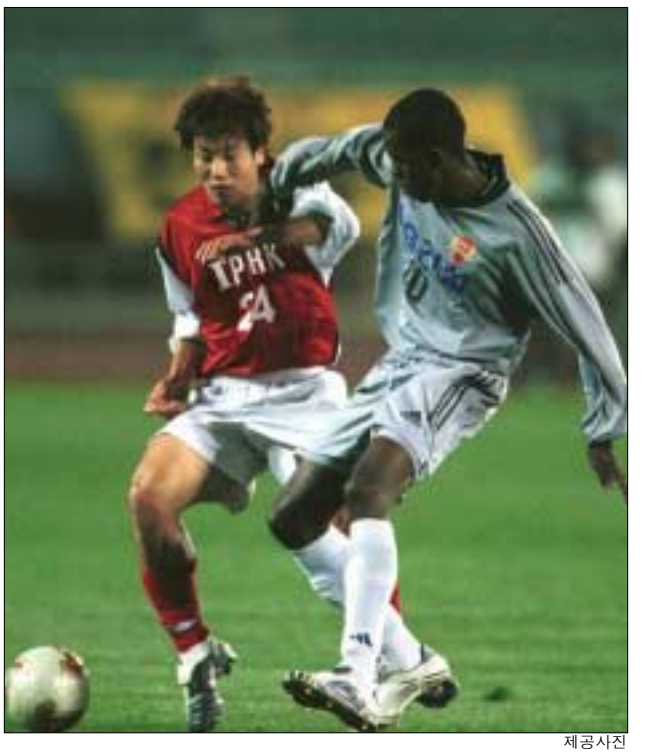
K 리그 최고의 장점은 각팀의 축구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선이 굵은 축구로 대변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조직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세리에 A, 화려함과 깔끔함의 결정체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축구를 K리그에서 모두 구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그만큼 각팀이 추구하는 축구의 스타일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덧붙여 강등과 승격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경기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또한 K 리그의 묘미이다.

-K리그의 탄생과 모기업과의 관계

K 리그의 탄생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여러 팬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유럽에 있는 대형 팀들 역시 대다수 팀의 최고 주주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민구단을 모토로 삼았던 대전 시티즌 구단은 자금사정 악화와 컨소시엄을 만들었던 그룹의 부도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구에서 FC 대구 라는 이름으로 시민주를 공모하는등 창단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K리그의 단점

정규리그 전, 여러 컵대회가 난무해 리그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수 있고,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 프로팀이 없는것 또한 프로축구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한 요소가 될수 있다.



제공사진

송종국 선수의 부산 아이콘스 시절 활약 모습

국가대표 경기에 비해 관중이 턱없이 적으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저변이 미미해 대부분의 구단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각팀 소개

성남 일화

성남 이라는 이름보다 '천안일화'로 유명했던 팀이다. 박종환 감독 시절 고정운, 신태용, 샤리체프(현 신의손)등을 앞세워 93,94,95 시즌 최초로 3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뛰어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박종환 감독 시절 선이 굵은축구를 구사하였으나 차경복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는 미드필더에서의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정교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현재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축구를 구사하는 몇 안되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즌 MVP를 차지한 김대의의 활약이 돋보이며, 스피드와 돌파력을 갖춘 김대의와 결정력과 파괴력을 갖춘 샤샤, 두 공격수의 조합은 10개 프로축구팀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팀내 최고 연봉대우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김도훈을 영입하였으며 주축 선수들의 군입대와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계속적인 선수보강으로 메꾸고 있다. 세계 유명 클럽 팀을 초청하여 벌이는 선문 Peace 컵에도 참가, 주목해 볼만하다. 데니스, 윤정환등 초호화 선수들을 영입하여 선수층이 매우 두꺼워 진것도 희망찬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성남의 모습일 것이다. 일본 국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가이모토 선수는 올시즌을 끝으로 J 리그 팀으로 이적했다.

제공사진

월드컵 3/4위전 에서 붉은 악마가 펼쳤던 카드섹션

안양 치타스

다소 수비지향적인 팀컬러를 갖고 있으며 고졸이하 유망주들을 영입, 육성하는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팀이다. 이의 결과로 차범근, 황선홍에 이어 한국 포워드의 대를 이을 거목으로 평가받는 정조국과 청소년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 박요셉 등 유망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신의손과 용병들 제외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젊은 편에 속한다. 이영표와 최태욱으로 이어지는 좌우 측면 공격의 옵션에서 히딩크의 품으로 돌아간 이영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41통신대대 일병 이현규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8 장

*혼인관계에 대해 여쭤봐도 됩니까?

관공서 또는 본인의 신상 명세서 난을 보면 marital status 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혼인사항' 정도가 되지요. 그와 관련된 대화 연습입니다.

Topic : "귀하의 혼인 관계에 대해 여쭤봐도 됩니까?"

Mind if I ask about your marital status?

주제연구: 신상명세서 난에 marital status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married' 라고 쓰면 되고 미혼은 'single' 그리고 이혼 하신 분들은 'divorced' 를 쓰시면 됩니다.

A: I am divorced.

B: No problem, I'm divorced, too.

A: Can I ask you why you divorced?

B: I think I and my ex-husband were not a match made in heaven.

번역)

A: 전 이혼했어요.

B: 뭐 어때요(그게 뭐 잘못인가요?) 저도 이혼했어요.

A: 왜 이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되요?

B: 저랑 전남편은 연분이 아니었나 봐요.

덧붙여)

대화중에 Match made in heaven 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말 그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 즉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이제 보니 영어 쉽죠?

*'독신주의자' 인가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신주의'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지요. 아시다시피 이웃 일본 또는 미국에선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 상황을 연습합니다.

Topic : "독신주의자입니까?"

Do you favor celibacy?

주제연구)

영어의 celibacy 에는 일반적인 독신주의 뿐 아니라 (성직자의) 독신 (주의) ; 금욕 (생활) , 육체적 순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A: Chris, do you favor celibacy?

B: What do you mean?

A: I mean you don't seem like the type to get married.

B: Yes. Sometimes I think marriage sucks.

번역)

A: 크리스, 독신주의자야?

B: 무슨 말이야?

A: 내 말은 네가 '결혼' 이라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B: 응, 나는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 할 거란 생각이 종종 들어.

덧붙여)

미국엔 특히 이혼을 한 후 독신 생활을 즐기는 도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동호회' 등 club 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Club for the divorced)' 등이 그것이죠.

*하시는 일이 뭐에요? (직업이 뭐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 볼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Topic: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직업이 뭐에요?) "

What do you do?

주제연구) "직업이 뭐에요?" 를 대뜸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경찰서에 끌려간 죄인의 심정' 을 느끼지요. 정리합니다. 사적으로 직업을 물어 볼 때는 "What do you do?" 이고 공적으로 물을 땐 "What is your job?" 입니다.

A: What do you do?

B: Currently, I'm unemployed.

A: I see, have you gone to the job fairs at the Plaza?

B: I didn't know they had those. When did they start?

번역)

A: 하시는 일이 뭐에요?

B: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무직입니다.)

A: 아 그래요, 플라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가 봤어요?

B: 그런 게 있었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덧붙여)

비슷한 표현으로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 있고, 좀 더 공식 석상에 쓸 수 있는 표현은 'What is your occupation?" 이 있습니다.

*조수아(Joshua)는 뭐 하는 사람 이에요?

Topic: "죠수아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What does Joshua do for a living?

주제연구)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물으면 약간은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접 해석하면 "당신 뭐 해먹고 살아?" 가 되지요.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보다는 What do you do? 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for a living" 이란 표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직접 쓰기는 껄끄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3자에겐 문제없어요. 이런 차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Joshua 는 남자 이름 입니다.)

A: What does Joshua do for a living?

B: Joshua who? You mean Peter's brother?

A: Yes, do you know what kind of work he is in?

B: I overheard that he is a car mechanic.

번역)

A: 조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야?

B: 누구 말이야? 아, 피터네 형 말이지?

A: 응,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

B: 내가 언뜻 듣기엔 자동차 정비사라고 하던데.

덧붙여)

overheard 를 볼까요? 먼저 overheard 는 overhear 의 과거형입니다. 이 단어는 over 과 hear 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over 은 '~ 넘어서', '대충대충' 이라는 의미의 접두어 이고 hear 은 말 그대로 '~를 듣다' 입니다. 그러니 overhear 는 '~ 사실을 대충 대충 듣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언뜻 듣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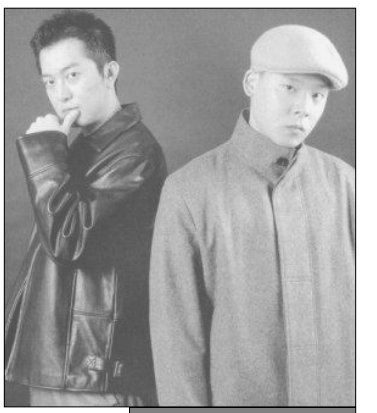
MOVIE

8 Mile

감독: 커티스 핸슨

주연: 에미넴, 킴 베이싱어

디트로이트의 소외받은 계층은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이러한 계층, 특히 빈민 흑인들에게 힙합은 탈출구이자 삶의 에너지이다. 지미 스미스 주니어에게도 힙합은 유일한 출구이자 그를 지탱해주는 에너지이다. 결손가정에서 살고 있는 지미는 그의 친구들과 그들만의 가족을 이룬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성공하리라는, 이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TOP CHARTS

브라운아이즈

점점

2. 보고싶다/김범수
3. 투 마이 러브/T
4. 편지/지오디
5. 네버 엔딩 스토리/부활
6. 빛/이수영
7. 너의 결혼식/신화
8. 고백하는 날/이기찬
9. 스테이/이현우
10. 좋은 날/유리상자
11. 굿바이/이수영
12. 낙원/싸이
13. 붙잡고도/노을

동화나라에서 온 요정! 임은경

카투사 신문은 'TTL 소녀'로 널리 알려진 임은경을 인터뷰하기 위해 청담동의 한 미용실을 찾았다. 광고에서 보여준 신비함 그리고 인형과 같은 외모는 충분히 그녀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인터뷰 내내 쑥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과 어린 소녀의 웃음을 짓는 그녀의 순수함이었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그녀를 보며 그녀가 자신의 일을 즐기고 또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투사 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연기자로서의 급속한 성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의 다음 작품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자기소개

우선 제 이름은 임은경이고요, 올해 03학번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게 됐고, 제 생년월일은 83년 7월 7일이예요.

-데뷔하게 된 계기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이병헌씨 팬 싸인회가 있었어요. 이병헌씨 팬 싸인회에서 싸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캐스팅 된 거예요.

-영화와 CF를 비교하자면

영화와 CF 둘 다 공통된 점이 있어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CF를 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CF는 금방 찍고 금방 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 영화는 부담도 많고 긴장되는 순간들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왠지 영화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F와 영화 이외에는 아직 다른 계획은 없고요.

-최근근황

영화 '품행제로'를 찍고 난 요즈음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작품에 대해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 '품행제로'에 대해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싸움을 잘하는 한 학생이 학교를 장악하면 아이들이 그를 '짱'이라 부르잖아요. 영화 '품행제로' 안에서는 주인공 '중필'이가 학교 '짱'이 되요. 주위 여러 학생들은 그를 우상화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중필'이는 예쁘고 공부 잘하는 '민희'를 사랑하게 되지요. 효진 언니가 맡은 '장나영'이라는 인물과 '민희' 그리고 '중필'이가 삼각관계로 엮이는 내용의 영화랍니다.

-'품행제로'에서 맡은 '민희' 역에 대해

주인공 '민희'는 매우 당찬 아이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이지요.

-영화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글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중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중필'이를 때리며 대사를 내뱉고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집으로 달려가는 장면이었는데 달려가다가 카메라에 다리가 걸릴까봐 멀리 돌아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거기에 계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제 소리를 듣고 막 웃었어요.

-성격

글쎄요. 조금 내성적이고 거기에다가 낯을 또 많이 가려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면 또 활달하기도 해요.

-취미

저는 인형이나 아기자기한 것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만화책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만화책을 볼 틈이 없어요. '꽃보다 남자'란 만화책을 즐겨봤었어요.

-별명

지금은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마네킹이라고 불렸어요. 마네킹 같이 생겨서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서 "너는 어디서 온 아인데 그렇게 마네킹 같이 생긴 애가 앉아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네킹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데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제대로 말하면 이건 이상형 얘긴데, 박신양씨가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 이상형이 지적인 사람인데 박신양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신양씨 좋아해요.

-존경하는 연예인

저는 심은하씨를 존경해요. 뭐랄까? 보기보다 힘이 매우 많아 보이고, 연기하시면서 기와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10년 후에 나는 어떠할 것인가

글쎄요. 10년 후면 저는 아줌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10년 후쯤 지나면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것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그 소망은 라디오 DJ를 12시 정도에 한 번 진행해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어떤 연예인으로 기억 남고 싶은지

'그냥 깨끗한 연예인이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스캔들 이런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는 이미지가 신선하고 깨끗했으면 하는 것이죠.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책

책은 하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가서 본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림이 매우 예쁜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편안하잖아요. 딱딱한 게 싫고, 지저분하게 써 있으면 책 사려고 할 때도 거부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은 표지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큰데다가 칼라예요. 글씨도 많지도 않은 책이고 내용은 친구에 관한 것이에요. 인생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이 책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니깐 꼭 읽어보세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계속 관객들이랑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들만 보여드리려 제 나름대로의 노력도 할 것이고, 올 한 해, 영화와 드라마를 할 계획이에요. 특별히 해보고 싶은 역할은 아직 없고 지금은 그때그때 봐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이상형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박신양씨가 제 이상형에 가까워요. 그런 지적이고, 깔끔한 이미지 말이에요.

-카투사에게 한 마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군인으로서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카투사가 되시기를 바래요. ■

이병 윤종필

PROFILE
이름: 임은경
생년월일: 1983년 7월 7일
신장: 163cm
몸무게: 39kg
혈액형: AB형
학력: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카투사 신문 장승모